

내 안에 전쟁을 멈추게 하는 기도

Prayer That Brings an End to the War Within Me

사무엘하 9장 1-13절

1.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4.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9.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11.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2. 므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1. 상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생각해보며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2. 다윗이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만나기 싫은 사람’ 혹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도 사울의 집안일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이들로부터 목숨조차 위태로웠던 끔찍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3.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찾아내되, 그 목적이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1, 3).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도로 찾아주고 그가 왕의 식탁에서 평생 밥을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는지 묻는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며, 골3:14, 마5:44, 롬12:44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 하신 이유를 묵상해봅시다.
4. 1번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렸다면, 이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형식적으로가 아닌 진심을 담아 기도해봅시다.

